

2010하반기 충남 공공디자인 워크샵

2010년 7월 8일(목요일)



공주시

“디자인 도시공주” 로서의 변혁이 시작됩니다.



문화가 흐르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카페의 거리에서의 만남...

유구한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국고개에서의 만남은
공주가 간직한 일상의 행복이다...

“디자인 도시공주” 의 변혁은

문화와 사람의 마음을 결합하는 디자인 예술고을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100여년간의 시간이 박제된 공간에 있는 구 읍사무소와 유구한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국고개를
복잡한 도심의 일상적인 환경들과 대비되는 음악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바쁜 일상의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며 국고개만의 독특하고 미려한 경관을 창출하여,
공주 강남지역에 디자인거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주최 : 충남 공주시

추진실적 : 2009, 2010. 공주시 디자인 카페 – 일상의 행복 Happiness for Daily life

2007, 2010. 담장허물기로 소통의 장 ! 문화공간의 장 !

2009, 12, 21. 청소년의 열린 문화공간 ! 청소년이 행복한 공주 ! 청소년문화센터

2009, 2010.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2008, 2010. 전설이 깃든 국고개문화거리조성 (역사박물관 광장, 구 읍사무소 음악공원)

2009, 2010. 백제의 옛고을! 거리 간판을 디자인 하다! (옥룡사거리 ~ 박물관사거리)

2009, 2010. 무령왕릉길이 달라졌어요

2009, 2010. 사랑받는 생태하천으로 태어나다

2009, 2010. 한옥숙박촌 조성

2009, 2010. 예술이 넘치는 중장리 마을 탄생

2009, 2010. 푸른내 맑은내 제민천 명소화 사업

총사업예산 : 500억



314 - 702 충청남도 공주시 농황로 1
미래도시팀 Tel. 041) 840 - 2225
<http://www.gongju.go.kr>



“디자인 도시공주” 의 변혁

국고개 거리의 역사적 배경(효자 이복)과 충남역사박물관, 중동성당(충남도 지정문화재) 구 읍사무소(등록문화재) 등 주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거리를 조성하므로 침체되어 있는 거리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백제의 향기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구도심권의 경기 활성화 도모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한 간판정비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



공주시 디자인 카페 - 일상의 행복을 주는 디자인 카페 개관

등록문화재 제443호로 지정된 구 공주읍사무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내부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독특한 기둥과 엔터를 러弃어로 구성된 2층 벽돌조 근대양식 건축물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디자인 카페를 개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piness for Daily life



공주시 디자인 카페 : 일상의 행복을 느껴요...

공주시 구 도심의 중심에 자리잡은 구 읍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이다.
영국의 현대 디자인과 한국의 건축, 전통공예가 만나 문학가 숨쉬는 카페로 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 디자인 카페조성에 참여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큐레이터 클레어 컴버리지(Claire Cumberidge)는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마을카페라고 하였다.

공주시 디자인 카페 - 디자인 카페에서 일상의 행복을 찾다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네 카페입니다. '일상의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디자인 생산 과정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유통과 소비의 기반을 은유하는 존재로서의 동네 카페를 선보이려 합니다.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 한 2층은 한국적인 건축과 조형이 조화된 디자인으로 건축가이자 환경디자이너인 김백선의 작품으로 꾸며집니다.



Happiness for Daily life – INTERIOR



공주시 디자인 카페 : 일상의 행복을 느끼세요...

▣ 현대적 디자인과 한국의 전통 공예를 결합해 생동감 넘치고 다이나믹한 카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원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자는 것이 '공주시 디자인 카페' 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일상의 행복 카페는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주의 유일무이한 디자인카페가 될것입니다.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구 읍사무소 앞 광장)

박제된 폐허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부활과 희망, 창조를 일상에서 찾는 공간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곳의 정지된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TIMELESS MUSIC PARK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TIMELESS MUSIC PARK)

▣ 구 읍사무소는 100여년간의 시간이 박제된 공간이다. 도시의 복잡하고 일상적인 환경들과 대비되는, 구 읍사무소 주변에 로마같은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을 조성한다. 이 야외공연장은 실제 공연도 가능하지만 평소에는 벤치와 공원의 기능을 한다. 창조된 원형의 유적을 기르는 조경의 요소들은 공연장 내·외부의 경계없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곳은 바쁜 일상의 시민들이 정지된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시각, 청각, 후각 및 촉각의 느낌으로 찾아가는 곳이다. 이 박제된 폐허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역설적으로 생명 부활의 희망과 창조를 일상에서 찾았으면 한다.

청소년 문화센터 – 청소년의 열린 문화공간! 청소년이 행복한 공주!

청소년들의 끼, 재능, 꿈을 건강하게 설계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청조적인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Culture Center for Teenagers



청소년 문화센터 (Culture Center for Teenagers)

▣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의 인격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벌치고자 공주시청에서 (구)경찰서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단체인 (사)한국B.B.S 공주지부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강좌,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창조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시설입니다.



공주문화원

1954년 12월 16일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문화 예술기관으로 공주지역의 문화 사업과 사회교육사업, 향토 문화연구 및 각종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Gongju Culture Center



공주문화원 (Gongju Culture Center)

▣ 소식지 「공주문화」 와 공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주의 전통미을」 을 발간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연구소 ·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전국 문화 유적 순례 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주문화원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정기 공연, 찾아가는 우리 문화 순회 공연, 호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글짓기 백일장,
향토 작가 초대전, 통합 복권 기금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시키고, 지역 문화가 사회적 중심 가치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문화 의식 제고와 활발한 문화 활동의 전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고장 공주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박물관사거리 – 전설이 깃든 국고개 문화거리조성

국고개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주의 대표 역사가로를 개발하고, 가로시설물, 간판 등의 정비를 통해 주변 상업시설을 활성화 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연출



Culture street road

도로와 경계를 재구성한 오픈스페이스와
가로수의 그린 네트워크, 상가거리의 야간조명 계획으로 공간의 연결성 구성



역사박물관 광장 – 전설이 깃든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

옥룡동 네거리 – 구 생회당집에 이르는 1.2km 구간의 '걷고 싶은 명품 문화거리 조성사업' 중간 지점에 국고개의 역사를 설명한 효자 이복 부조 조각, 근대우물을 복원, 12개 동물과 12인물상으로 된 분수를 조성함으로써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제민천과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Culture street road

공주시는 국고개의 역사를 설명한
효자 이복 부조 조각과 조형블록,
근대우물을 복원했고 광장 벽면에는
12개 동물과 12인물상으로 된 분수를
조성



국고개 지역의 오픈스페이스화로 시야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중동성당과 역사박물관 주변의 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옹벽부분을 갤러리로 활용 재구성 하여 문화거리의 핵심으로 공간구성



역사박물관 광장 앞 – 전설이 깃든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공공디자인을 입히는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유동인구, 고정인구의 인구밀도를 높이며 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 문학, 공공디자인을 접목시켜 디자인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를 견인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Culture street road

도로와 경계를 재구성한 오픈스페이스와
볼라드, 간판정비화 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연출하였습니다.



별첨

무령왕릉길이 달라졌어요

2010 대백제전 개최 도시에 맞는 가로망을 정비하여 내방객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 도로환경 제공



백제의 성 이미지를 살려 새롭게 태어난 무령왕릉길



무령왕릉길 : 백제 문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길!

▣ 백제의 성 이미지를 살려 새롭게 태어난 무령왕릉길... 백제 시대의 예술적감각,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별첨

담장허물기로 시민들과 더욱 친근하게 되었어요

도심속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하며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폐쇄형 공간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조성 및 주민들과 소통의 장 으로 공간 제공



담장허물기로 소통의 장 ! 문화공간의 장 ! 제공



담장허물기 – 담장허물기로 소통의 장 ! 문화공간의 장 !

지역경관의 향상, 녹지공간의 확대, 인간적 유대감 등 도시생활의 전반적인 쾌적도 향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별첨

한옥숙박촌 조성

박물관, 무령왕릉, 선화당, 공예공방촌, 숙박촌 등 인근 문화재와의 상호 연계로 역사, 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의 획충 및 머무르며 쉬어갈수 있는 한옥숙박촌 조성



한옥의 획일성 보다는 다양함을 제공, 웰빙 효과도 제공하는 한옥숙박촌조성



한옥숙박촌조성

▣ 2010세계대백제전 대비한 현대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도입한 전통적 건축형식의 한옥숙박촌 건립으로
한국의 우수성 인식재고

별첨

새롭게 태어난 정안천

오염된 하천, 버려진 하천을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자전거 도로 및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므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은 물론 청소년의 생태체험 학습장소로 활용



버려진 하천! 오염된 하천! 사랑받는 생태하천으로 태어나다



정안천 생태공원으로 오세요...

▣ 정안천 생태공원은 폐죽나무, 조팝나무 등 다양한 봄꽃들이 장관을 이뤄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연인 등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별첨

푸른내 맑은내 제민천 명소화 사업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청의적인 데크 교량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



데크 교량 설치 / 편안한 쉼터 제공



새롭게 만들어진 제민천 데크 교량에서 삶에 여유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느껴보세요...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 새로운 산책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별첨

예술이 넘치는 중장리 마을

문화체육관광부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길섶미술로 꾸미기 사업추진으로 농촌지역에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의 장 조성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나눔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 마을조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명소화



중장리마을의 이색적인 예술 작품들



중장리 마을이 예술 마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공주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장리 예술마을”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별첨

예술이 넘치는 중장리 마을

여러 작가의 작품 설치를 통해 문화 예술이 살아숨쉬는 마을로 조성
주민들의 공공 미술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한번쯤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중장리 예술마을



예술작품을 통해 누구나 한번쯤 웃고 지나치는 공간...

▣ 담장에 이름다운 벽화로 새 옷을 입혀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곳곳에 이색적인 작품을 설치하여
중장리 마을이 “예술마을”로 달라졌습니다.